

지상진료실

양성 점막 유천포창 (BMMP)

서울치대 구강진단학교실

이승우 · 김연중

유천포창은 수포성 유천포창(Bullous pemphigoid)과 양성점막 유천포창으로 분류되는데, 상피하방에 수포를 형성하며 동일한 구강내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두가지 형태의 유천포창을 보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상피-결체조직 연결부위(epithelial-connective junction)에 gammaglobulin의 침착을 보이며, 수포성 유천포창을 가진 환자의 대부분에서는 기저막 항원(basement membrane zone antigen)에 대한 항체(circulating antibody)가 나타난다.

양성점막 유천포창 환자에서는 일부만이 이 항체를 가

진다. 수포성 유천포창의 발생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으며, 주로 피부에 호발하고 33%의 환자에서만 구강내 소견을 보인다.

양성점막 유천포창은 주로 여성에 호발하며 거의 모든 경우에서 구강점막의 병적소견을 보인다. 결막에 발생한 경우 검구 유착(symblepharon) 형태의 반흔을 많은 증례가 있으며 초기의 구강내 변화는 병소주위가 발적을 보이는 황색 또는 출혈성의 수포이다. 주위가 습하므로 수포가 터져서 fibrin으로 덮힌 궤양을 형성하게 된다. 구강내 호발부위는 구개, 협점막, 치은이나 치조경이다.



<사진은 67세 여성에서 구개에 발생한 전형적인 병소이다.>